



배 포 일

2024. 10. 15.(화)

담 당 자

홍지형 비서관

서울경찰청 관할 지구대 · 파출소별 경찰 1인당 출동 건수 불균형 심각 ... 최대 56건, 최저 12건으로 격차 5배 달해!
이달희 의원 “조직 진단 통해 지역 치안 특성 고려한 인력 재배치 시급!”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서울경찰청 관할 지구대 · 파출소별 경찰관의 업무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지역 치안 특성에 맞는 인력 재배치를 주문했다.

이 의원이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서 간 1인당 출동 건수 격차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관 1인당 출동 건수가 가장 적은 곳은 혜화파출소이며, 출동건수는 평균 12건으로 서울청 관할 228개소(공동체 관서 제외) 기준 가장 적었다. 반면, 출동 건수가 가장 많은 종로2가지구대의 경우 평균 56건으로 최소 출동 관서와의 차이가 무려 5배에 달했다.

이달희 의원은 “서울경찰청 관할 지구대 · 파출소별 1인당 출동 건수 격차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지역 치안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치안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현장에서 고분분투하는 지역 경찰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조직 진단을 통해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인력 배치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

□ 서울경찰청 관할 지구대·파출소별 출동 건수 상·하위 5개소 현황 ('24년 6월 기준)

최다 출동 5개소		최소 출동 5개소	
서울 종로 종로2가지구대	56건	서울 혜화 혜화파출소	12건
서울 수서 도곡지구대	53건	서울 강서 등촌2파출소	12건
서울 마포 홍익지구대	52건	서울 성북 성북파출소	13건
서울 영등포 여의도지구대	51건	서울 혜화 명륜파출소	16건
서울 강남 논현1파출소	51건	서울 서초 우면파출소	17건